

Kstat Report

85호 || 2023년 10월 26일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인공지능의 우리 삶 영향력 평가

- _ '인공지능(AI)'에 대해 '알고 있다' 응답 절대적으로 높아
- _ 인공지능,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 삶 '영향 미칠 것'
- _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 소득에 비례하고, 학생층 높아
- _ 성/연령별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 4050세대 특히 높아

■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 _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수용
- _ AI 관련 주장, 모든 주장에 대해 '이해충' 동의도 높아
- _ 2030세대, '인공지능' 발전에 신중한 모습
- _ 4060세대, '인공지능' 발전에 매우 적극적

■ 인공지능 개발 따른 '사람' 필요성 평가

- _ 인공지능 발전에도 '의사', '예술가', '교사' 등 사람 필요
- _ 종사자 불필요도, 남자 30대 매우 높아
- _ 4060세대, 40대 불필요도 높고, 60대 낮아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10월 6일(금) ~ 10월 8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6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9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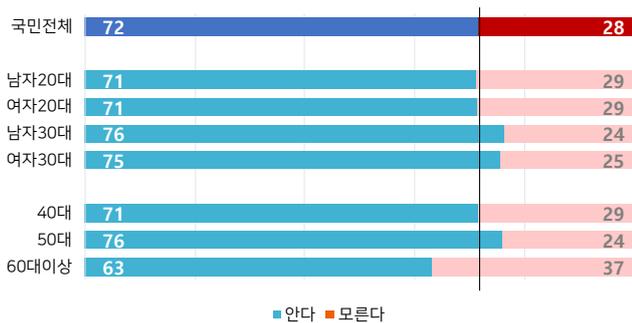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인공지능의 우리 삶 영향력 평가

인공지능(AI)에 대해 '알고 있다' 응답 절대적으로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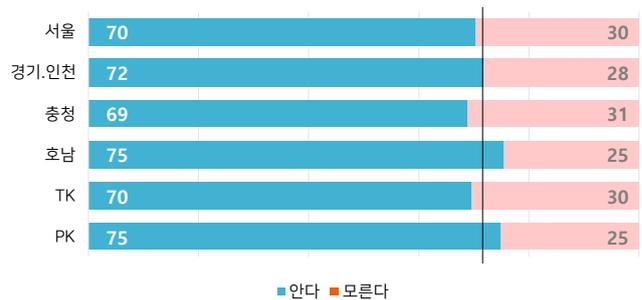
-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자신이 '인공지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함
- 인공지능(AI)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2%로, '모른다'는 응답 28%보다 압도적으로 높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30대 △50대 △호남, PK △화이트칼라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국민전체 응답 기준 선임
- '모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은 △60대이상 △충청 △주부,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인공지능' 주관적 이해도 : 국민전체,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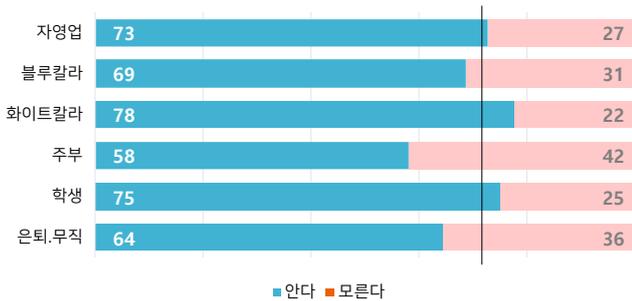
'인공지능' 주관적 이해도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3.10.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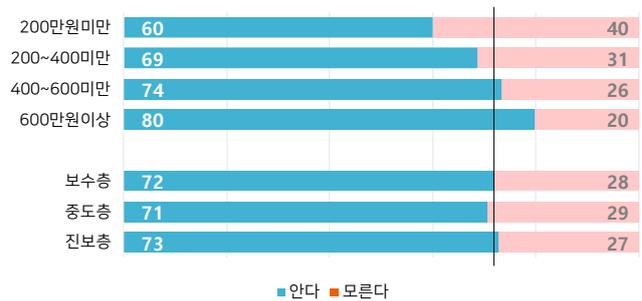
'인공지능' 주관적 이해도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3.10.08조사,단위:%)



'인공지능' 주관적 이해도 : 소득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3.10.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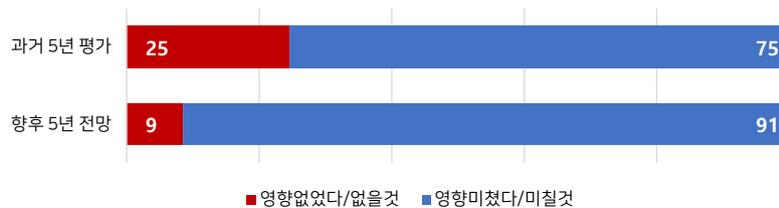
Kstat Point

- ☑ 2016년 3월,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국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이 큰 주목을 받았음
 - 이후 인공지능은 관련 업계 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나, 대중적 관심은 다소 멀어짐
- ☑ 그러나 작년(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되고, 그 놀라운 기능으로 인해 또다시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주관적 이해도는 72%로, 매우 높음
 - 실제 챗GPT 한국인 사용자는 220만명에 달하고 있을 만큼 관심이 뜨거움(자료 : 오픈AI)

□ 인공지능,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 삶 '영향 미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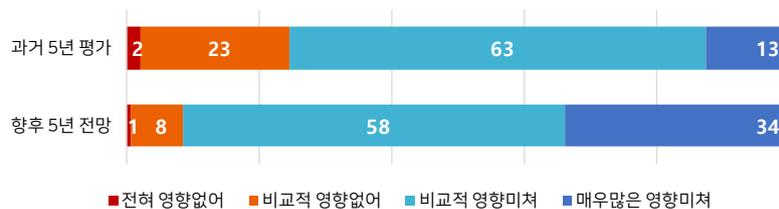
- 국민들은 과거 5년을 돌아볼 때,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쳤고, 향후 5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함
- 구체적으로 과거 5년을 돌아보면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영향 미쳤다'는 응답이 75%이고, '영향 없었다'는 응답은 25%로 조사됨
 - "최근에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 GPT'가 등장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과거 5년을 돌아볼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삶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 향후 5년을 전망하면, '영향 미칠 것' 응답이 91%로 더욱 높아지고, '영향 없을 것'은 9%에 그침
 - "그렇다면 앞으로 5년을 전망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 삶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임

'인공지능' 우리 삶 영향 정도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10.08조사,단위:%)



- 응답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향후 5년 동안 인공지능이 '매우 많은 영향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34%에 달할 정도로, 인공지능 영향력을 높게 평가함

'인공지능' 우리 삶 영향 정도 : 국민전체, 세부응답
(자료:케이스탯,2023.10.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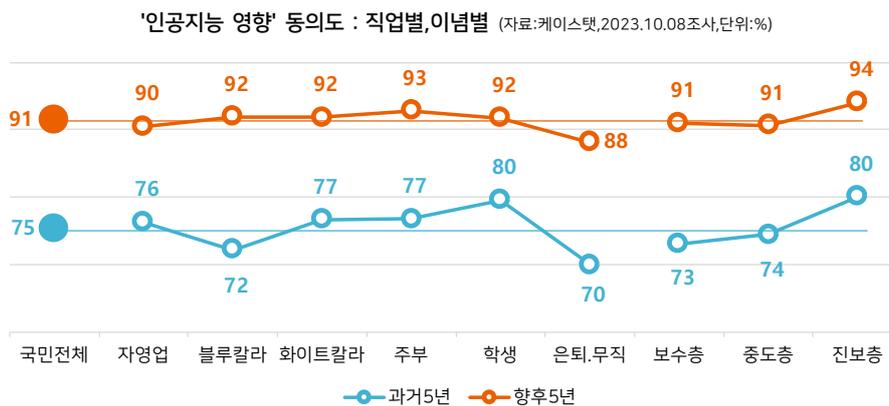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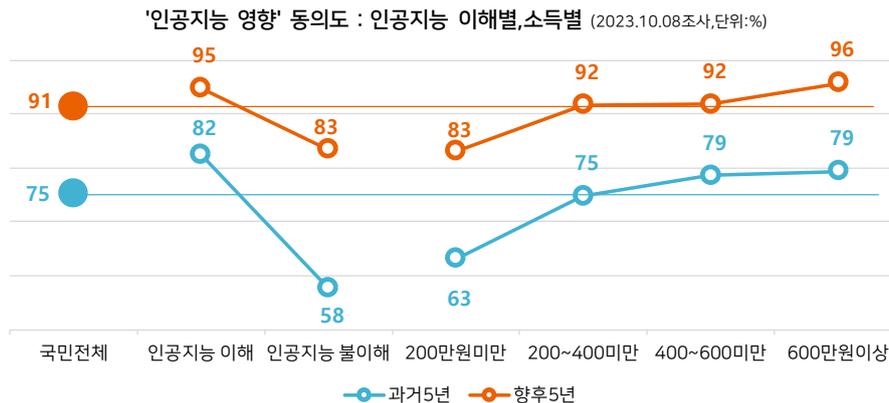


Kstat Point

- ☑ '챗GPT' 출시 이후 글로벌 IT 기업들은 빠르게 인공지능 시장에 뛰어 들고 있음
 - :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와 협업해 인공지능 검색서비스 'Bing'을 출시했으며, 오피스 프로그램에도 인공지능을 탑재해 서비스를 하고 있음
 - : 구글도 인공지능 'Bard'를 출시하는 등 IT 업계는 인공지능 개발에 몰두하고 있음
- ☑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클로바X'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발표하는 등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준비 중에 있어, 향후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 국민들도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 소득에 비례하고, 학생층 높아

- '인공지능'의 과거 5년과 향후 5년 영향 동의도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공지능을 '안다'는 이해층의 영향 동의도가 '모른다'는 불이해층보다 확연히 높음
 - 과거 5년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 인공지능 이해층 82% vs 인공지능 불이해층 58%
 - 향후 5년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 인공지능 이해층 95% vs 인공지능 불이해층 83%
-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가 비례해 높아짐
 - 과거 5년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 200만원 저소득층 63% vs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79%
 - 향후 5년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 200만원 저소득층 83% vs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96%
- 직업별로는 과거 5년에 대한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는 편차가 있지만, 향후 5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직업군이 높은 동의도를 보임
 - 전반적으로 학생층의 동의도가 높고, 은퇴.무직자의 동의도가 낮음
- 마지막으로 이념별로는 보수층에 비해 진보층의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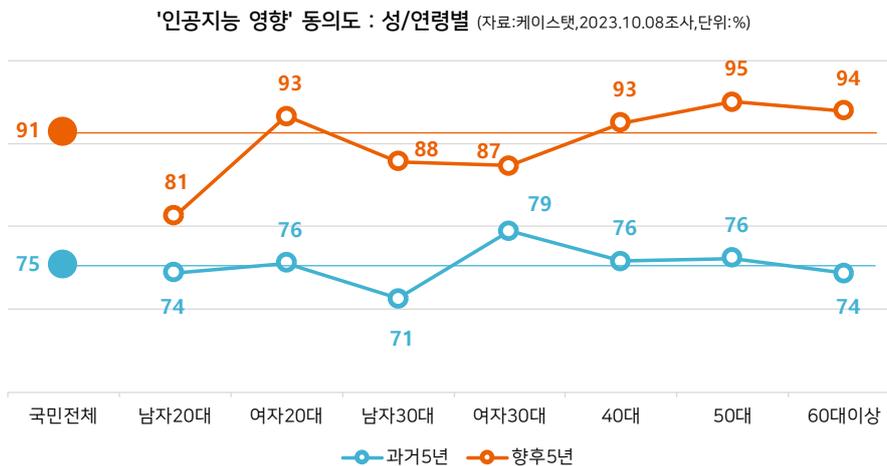


Kstat Point

- ☑ 모든 계층에 걸쳐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가 높고, 특히 향후 5년 영향 동의도는 매우 높음
 - : 과거 5년에 대해서는 계층별로 다소 평가가 다르지만, 향후 5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높은 동의도를 나타냄
 - : 그만큼 챗GPT 열풍 이후 인공지능이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분석됨
- ☑ 다만, 소득에 따라 영향 동의도가 달라 향후 인공지능의 편리성 등을 누리는데 소득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성/연령별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 4050세대 특히 높아

-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050세대의 동의도가 특히 높음
- 과거 5년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의 경우, 여자 2030세대와 4050세대의 동의도가 국민 전체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향후 5년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는 여자 20대와 4060세대의 동의도가 국민 전체보다 높아, 공통적으로 4050세대의 동의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 한편, 남자 2030세대의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는 과거 5년은 물론 향후 5년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남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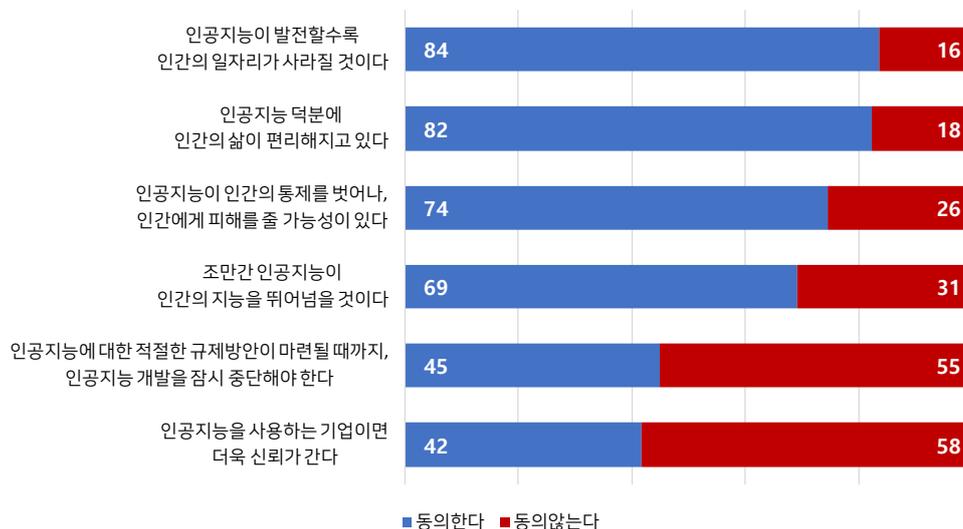
- ☑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류의 미래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됨
: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인류 미래상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전망이 각각 제기되고 있지만, '혁명적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 ☑ 이렇듯 미래 기술이라는 점에서 2030세대의 '인공지능 영향' 동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4050세대의 동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됨
: 이는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4050세대가 향후 미래에 대한 준비 역시 주도하기 때문으로 보임
: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연령별 임원 비중을 살펴보면, 53~57세가 41%로 가장 많고, 48~52세 37%, 43~47세 9% 등으로 4050세대가 절대적으로 높음 (자료 : 유니코써치, 2022년 반기보고서 기준)
: 이렇듯 4050세대의 미래계획에 2030세대가 끌려가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2030세대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임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수용

- 우리 국민들은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수용하는 모습임
- 먼저, 중립적 주장인 '조만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것이다'는 주장에 69%가 동의함
-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순기능으로 이야기되는 주장,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고 있다'에 대해 국민의 82%가 동의함
- 이에 비해 인공지능의 역기능으로 언급되는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주장에 84%가 동의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주장에 대해서도 74%가 동의함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인공지능 개발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55%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음
- 한편, '인공지능 시대'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정작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기업이면 더욱 신뢰가 간다'는 주장에 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인공지능' 관련 주장별 동의 여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3.10.08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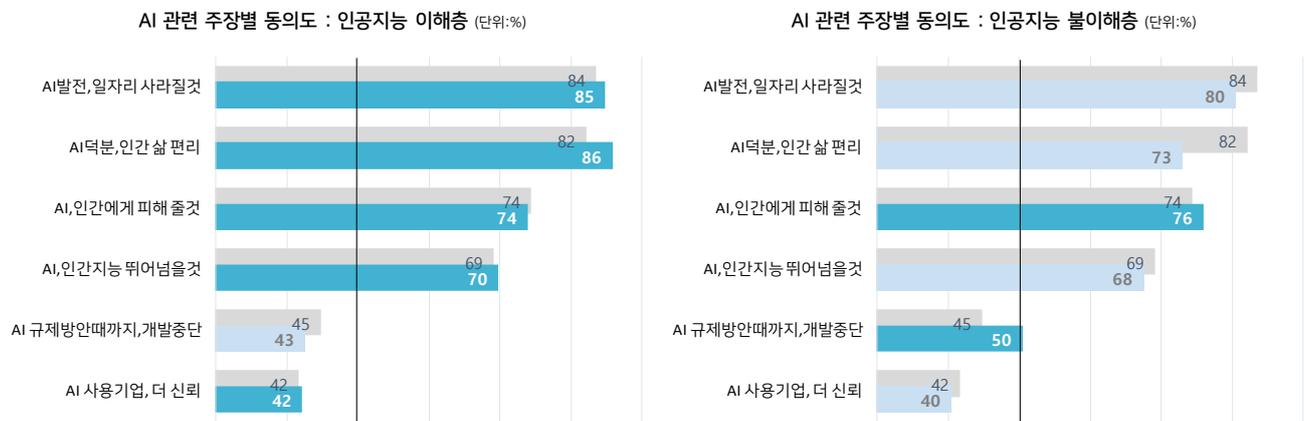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수용하는 모습임
: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통제불가능성에 동의하면서도, 개발 중단에 부정적임
- ☑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감은 인공지능 자체보다 이를 사용하는 사람, 특히 기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이되고 있음
: 즉, '인공지능 사용 기업'을 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함
: 향후 '인공지능'을 둘러싼 순기능/역기능 논란은 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AI 관련 주장, 모든 주장에 대해 '이해층' 동의도 높아

- 인공지능(AI) 관련 주장별 동의도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공지능을 '안다'는 이해층의 동의도가 높은 특징을 보임
- 인공지능 이해층은 거의 모든 주장에 대한 동의도가 국민 전체보다 높지만, 인공지능 불이해층은 대체로 국민 전체보다 낮음
- 인공지능 불이해층이 국민 전체보다 높은 주장은 인공지능의 역기능 관련 주장들임
 - 'AI, 인간에게 피해줄 것' 76%, 'AI 규제방안때까지, 개발 중단'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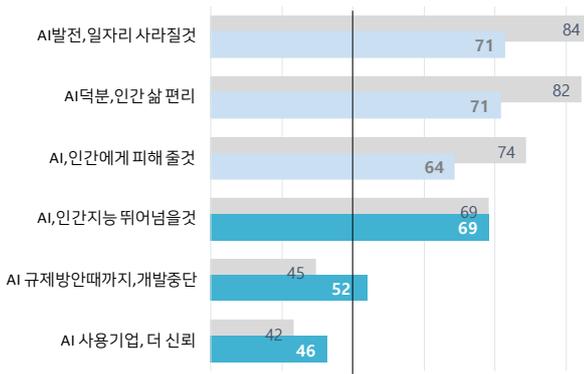
Kstat Point

- ☑ 인공지능 이해층은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 불이해층은 역기능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냄
 - : 인공지능 불이해층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피해줄 것'(76%)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인공지능 규제방안이 마련될때까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50%)
 - : 그러나 국민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이해층 비중이 높아(72%), 불이해층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다분함
- ☑ 다만, 향후 인공지능 발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기능이 부각되는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론이 달라질 개연성은 존재함
 - : 현재까지 역기능 관련 주장들은 '예측'의 영역이기에, '현실'적인 인공지능 발전을 가로막는데 역부족임
 - : 하지만 역기능에 대한 '예측'이 '현실'에서 대형 사건·사고로 나타날 경우, 인공지능에 대한 전면적이고 새로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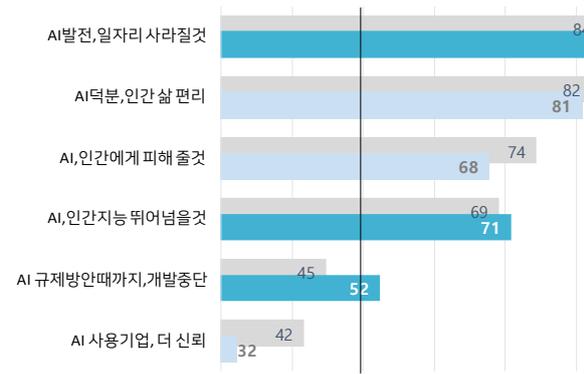
□ 2030세대, '인공지능' 발전에 신중한 모습

- 인공지능(AI) 관련 주장별 동의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2030세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자 30대를 제외하고 국민 전체보다 동의도가 낮음
- 구체적으로 남자 30대는 거의 모든 주장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동의도를 기록함
 - 국민 전체보다 낮은 동의도를 기록한 주장은 'AI 발전, 일자리 사라질 것'인데, 이 역시 국민전체와 거의 비슷함
 - 이에 비해 남자 20대와 여자 2030세대는 전반적으로 국민전체 보다 동의도가 낮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주목되는 점은 'AI 규제방안때까지 개발중단' 의견으로, 20대 남녀와 30대 남자는 동의도가 50%를 넘고, 30대 여자도 국민 전체보다 동의도가 높음
 - 'AI 규제방안때까지 개발중단' 동의도, 남자 20대 52%, 여자 20대 52%, 남자 30대 51%, 여자 30대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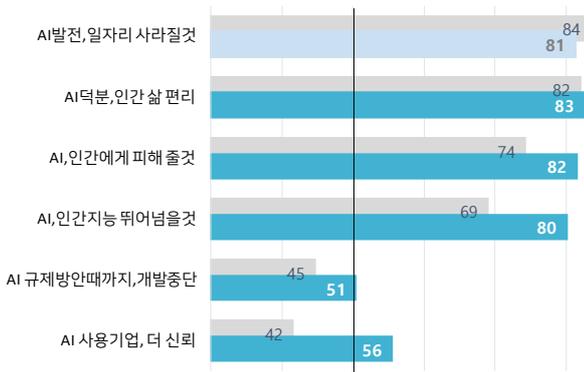
AI 관련 주장별 동의도 : 남자 20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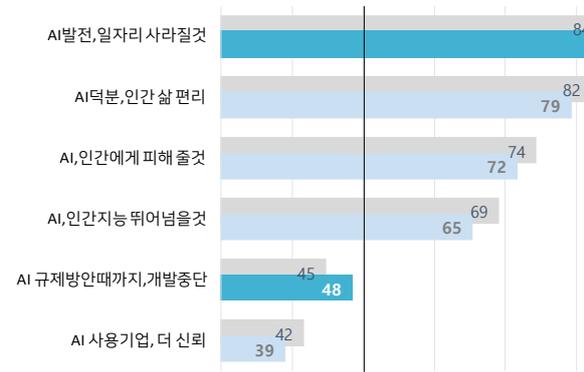
AI 관련 주장별 동의도 : 여자 20대 (단위:%)



AI 관련 주장별 동의도 : 남자 30대 (단위:%)



AI 관련 주장별 동의도 : 여자 30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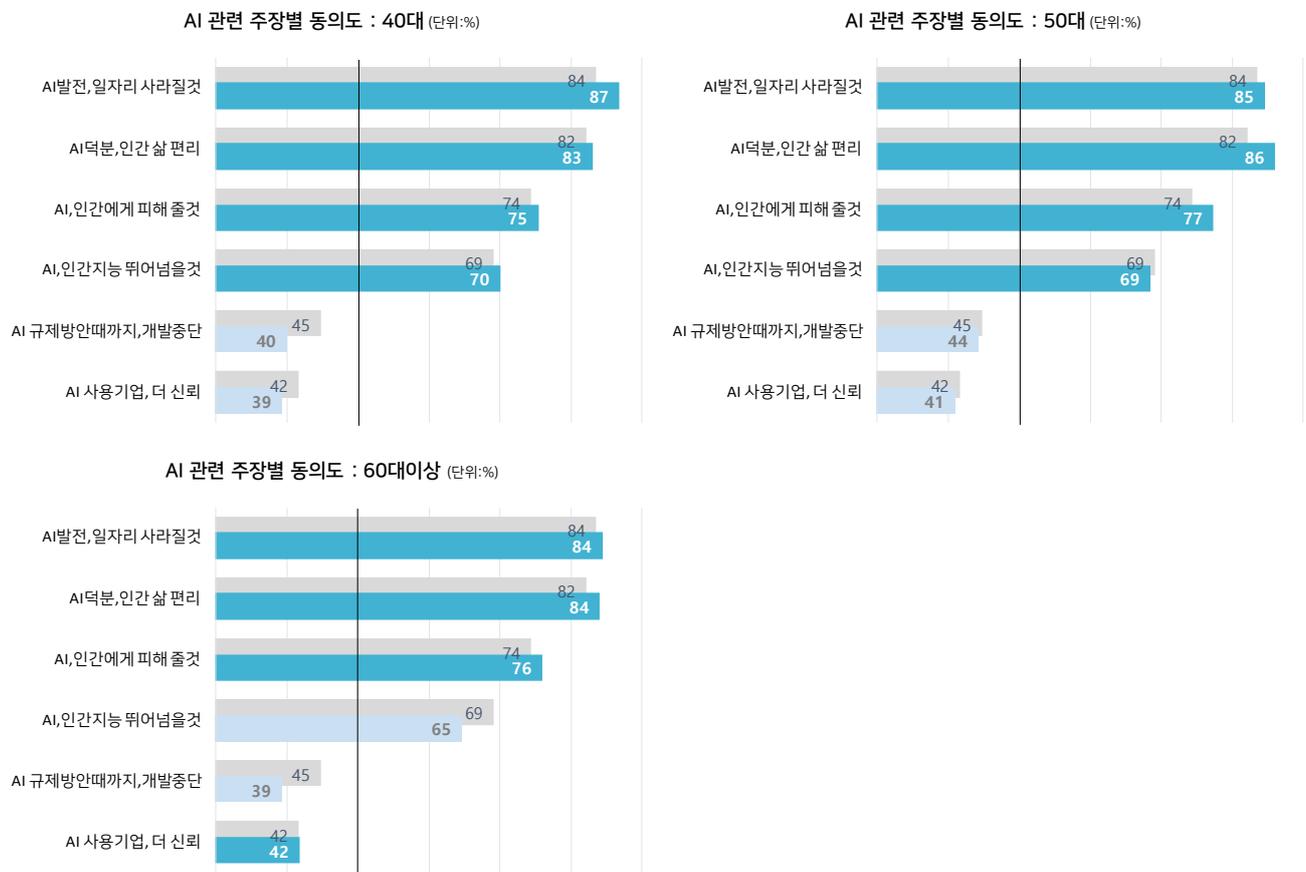


Kstat Point

- ☑ 2030세대는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수용하면서도, 역기능을 좀 더 우려하는 모습임
 - : 특히 '일자리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인공지능 규제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임
 - : 즉,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한편, 인공지능 사용기업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남자 2030세대는 긍정적이지만 여자 2030세대는 매우 부정적임
 - : 인공지능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 입장에서 2030세대 내의 남녀 차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임

□ 4060세대, '인공지능' 발전에 매우 적극적

- 4060세대의 인공지능(AI) 관련 주장별 동의도를 살펴보면, 큰 차이 없이 수치가 비슷함
- 또한 거의 모든 주장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동의도를 기록함
 - 국민 전체보다 낮은 동의도를 기록한 주장은 'AI 규제방안때까지 개발중단'과 'AI 사용기업, 더 신뢰' 두 주장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50% 기준선임
- 주목되는 점은 'AI 규제방안때까지 개발중단' 의견으로, 2030세대와 달리 4060세대는 동의도가 낮음
 - 즉, 'AI 규제방안때까지 개발중단'에 반대하고 있음



Kstat Point

- ☑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 2030세대는 다소 신중하고, 4060세대는 적극적인 양상임
 - : 이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2030세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4060세대는 순기능만 향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
 - : 즉, 가장 대표적인 역기능인 '일자리 소멸'의 경우 2030세대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설 것임
 - : 그러나 4060세대는 '일자리 소멸' 위협에 다소 벗어나 있으면서 순기능인 '인간 삶 편리'를 향유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서도 2030세대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미래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인데, 미래를 살아야 하는 2030세대에게 이러한 새로움은 '유토피아'이기 보다 '디스토피아'로 그려지는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 개발 따른 '사람' 필요성 평가

□ 인공지능 발전에도 '의사', '예술가', '교사' 등 사람 필요

- 국민들은 훌륭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도 해당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인공지능이 개발될 경우, 기존의 해당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 후, '매우 필요하다' 1점에서 '전혀 필요없다' 5점을 기준으로 응답받은 결과임
- 불필요성이 가장 낮은 직업 종사자는 의사이고, 다음은 예술가, 교사 순으로 조사됨
- 불필요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투자 자문가이고, 다음은 경기심판으로 나타남
- 2년 전인 2021년 10월 조사와 비교하면 응답 결과가 거의 비슷한 가운데, 투자자문가와 경기심판의 경우 '보통이다'(3점)를 넘어 '필요없는 편이다'로 소폭 이동함
 - 그 외에는 2년 전 응답과 거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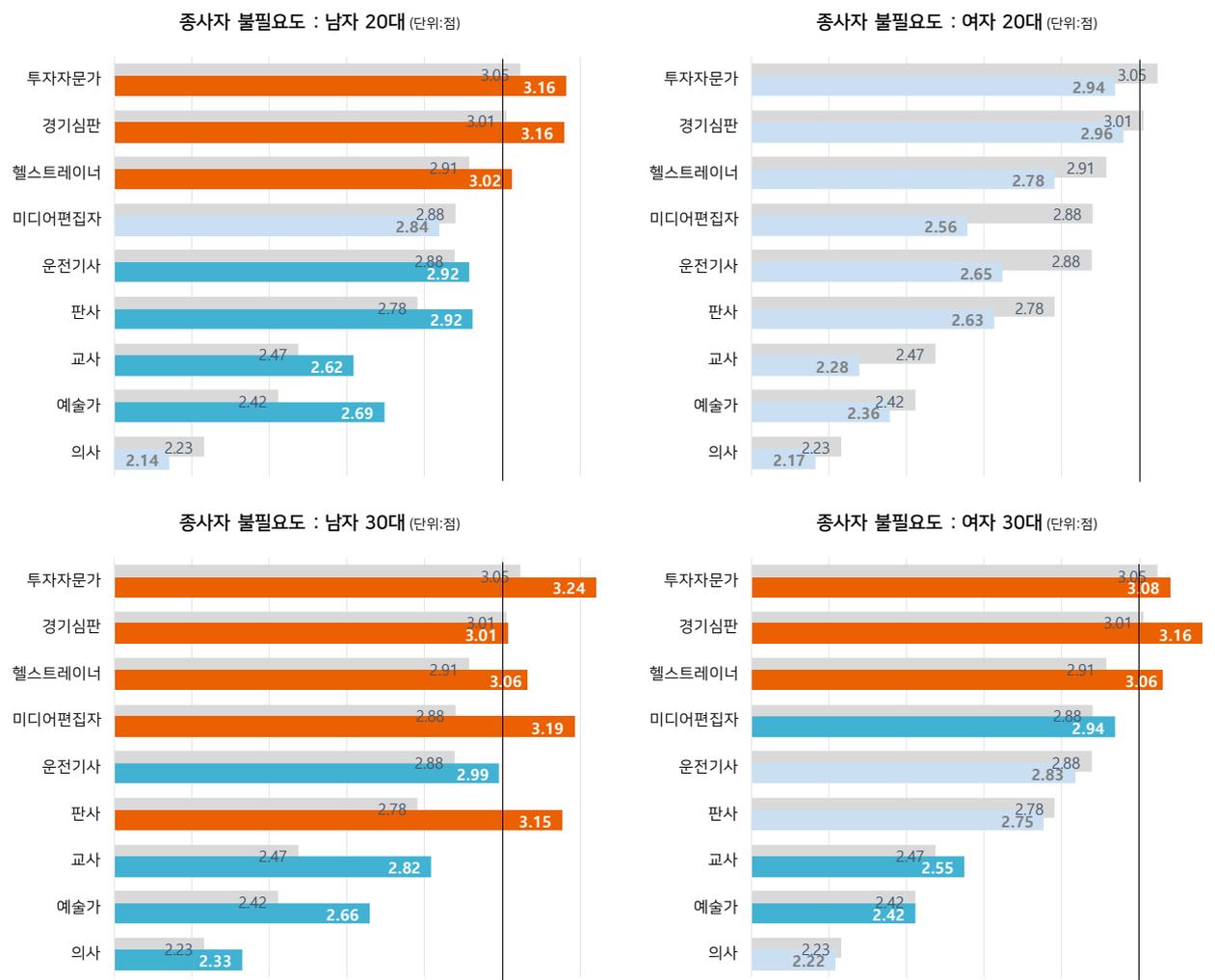


Kstat Point

- ☑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이에 비례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 영국의 경제학자 프레이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와 인공지능 전문가 오스본 옥스퍼드 교수는 향후 10~20년 후엔 인공지능으로 인해 노동시장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함
 -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GI)는 현재 존재하는 인간의 일자리 30%에 달하는 최대 8억 개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로 사라진다고 예측함
 - : 우리 국민들 역시 앞서 조사에서 보듯,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는 주장에 84%가 동의하고 있음
- ☑ 하지만 각각의 종사자를 특정해 조사한 결과 총 9개 분야 종사자 모두에 대해 '필요한 편'이라고 응답함
 - : 의사 등 대부분 종사자는 2점대에 위치해 있고, 3점을 넘은 경기심판과 투자자문가 역시 매우 소폭 상회함
 - :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일자리 소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종사자 불필요도, 남자 30대 매우 높아

- 종사자 불필요도를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30세대의 불필요도는 국민 전체보다 높음
- 남자 30대의 불필요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남자 20대, 여자 30대 순으로 높은 불필요도를 기록함
 - 남자 30대는 총 9개 종사자 모두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불필요도를 기록했으며, 3점 이상을 기록한 종사자 수도 5개로 매우 많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 종사자 불필요도가 3점을 넘으면 주황색 막대이고, 3점 미만이면 푸른색 막대임
 - 이때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으면 짙은 색이고, 낮으면 옅은색으로 표시함
- 여자 20대는 2030세대 전체와 달리, 9개 종사자 모두에 대한 불필요도가 국민 전체보다 낮음



Kstat Point

- ☑ 2030세대(여자 20대 제외)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 상당수 '종사자'가 필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함
 - : 앞서 2030세대가 '인공지능'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데는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임
- ☑ 특히 남자 30대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일자리 소멸 가능성을 냉정한 현실로 바라보는 모습임
 - : 이에 비해 여자 20대는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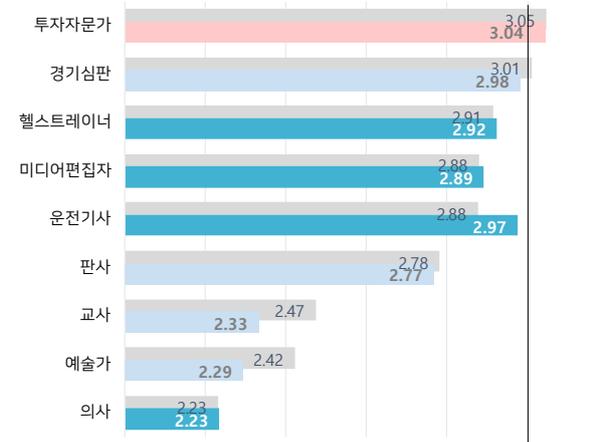
□ 4060세대, 40대 불필요도 높고, 60대 낮아

- 종사자 불필요도에 대한 4060세대의 의견은 연령별로 차이가 많은데, 40대는 불필요도가 높고, 60대는 낮으며, 50대는 그 중간 수준을 기록함
- 40대는 총 9개 종사자 중 8개에 대해 국민 전체보다 높은 불필요도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 선은 '보통'에 해당하는 3점 기준 선임
 - 종사자 불필요도가 3점을 넘으면 주황색 막대이고, 3점 미만이면 푸른색 막대임
 - 이때 국민전체 평점보다 높으면 짙은 색이고, 낮으면 옅은색으로 표시함
- 이에 비해 60대이상은 9개 종사자 모두에 대한 불필요도가 국민 전체보다 낮음
 - 50대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 일부는 국민 전체보다 높고 일부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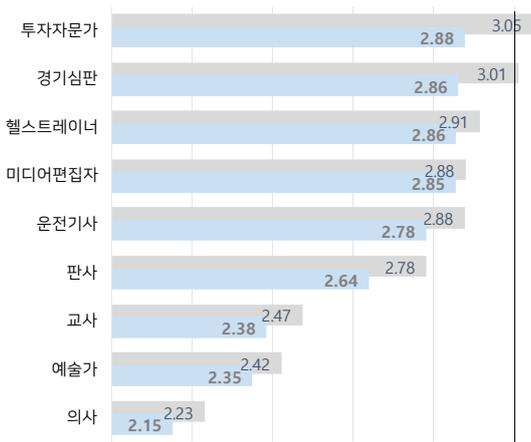
종사자 불필요도 : 40대 (단위:점)



종사자 불필요도 : 50대 (단위:점)



종사자 불필요도 : 60대이상 (단위:점)



Kstat Point

- ☑ 4060세대는 '인공지능'에 매우 적극적이고,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인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종사자 불필요도를 볼 때 5060세대의 경우 일자리 소멸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적임
- ☑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2030세대와 4060세대의 태도 차이의 중심에는 '일자리 소멸'이 자리하고 있고, 2030세대(특히 남자 2030세대)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86호, 87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86호와 87호는
각각 11월 9일(목요일), 23일(목요일)에 발간되며,
케이스탯 2023년 11월 사회지표는 11월 16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